

공 고

●문화재청공고 제2021-32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7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8. 31.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총 7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光州 德林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불상 26구, 발원문 3점, 후령통 2점	대한불교조계종 덕림사
2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高興 楞伽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 및 十六羅漢像 一括)	불상 23구, 발원문 18점, 후령통 20점	① 불상: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사 ② 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사(순천 송광사성보박물관)
3	김해 은하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金海 銀河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불상 21구, 발원문 2점	대한불교조계종 은하사
4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求禮 華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四菩薩立像)	불상 3구, 보살상 4구, 불상대좌 3점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5	데니 태극기 (데니 太極旗)	1점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6	김구 서명문 태극기 (金九 署名文 太極旗)	1점	국 유 (독립기념관)
7	서울 진관사 태극기 (서울 津寬寺 太極旗)	1점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나.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 총 3건

등록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해제사유
국가등록문화재 제382호 (2008.8.12.)	데니 태극기 (데니 太極旗)	1점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에 따른 국 가등록문화재 해제
국가등록문화재 제388호 (2008.8.12.)	김구 서명문 태극기 (金九 署名文 太極旗)	1점	국 유 (독립기념관)	
국가등록문화재 제458호 (2010.2.25.)	서울 진관사 태극기 (서울 津寬寺 太極旗)	1점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다. 지정예고 사유 : 불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光州 德林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 지정현황 :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7호(2005.7.19. 지정)
- 명 칭 :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光州 德林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덕림사
- 소재지 : 전남 광주시 남구 월산로 116번길 22, 덕림사
- 수 량 : 불상 26구, 발원문 3점, 후령통 2점
 - ① 불상 26구 : 지장보살 1구, 도명 1구, 무독 1구, 십대왕 10구, 동자 7구, 관관 2구, 귀왕 2구, 사자 2구
 - ② 발원문 3점 :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귀왕에서 발견
- 규 격 : 별표 참조
- 재 질 : 목조
- 조성연대 : 1680년(숙종 6)
- 제작자 : 색난(色難), 도현(道軒), 충옥(沖玉) 모현(慕賢), 혜찰(惠察), 귀일(故一), 석종(釋宗), 득우(得牛), 초변(楚卞), 진기(進機), 성훈(性訓)
- 사 유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1680년(숙종 6) 색난(色難, 17세기 중반~18세기 초)이 제작했음을 알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작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작품에 해당한다. 수조각승 색난은 무염, 인균 등 역량 있는 스승 또는 선배 조각승들로부터 수련과 영향을 받았으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약 40여 년 간 활동하면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17세기 전반기 대활약한 조각승 현진(玄眞)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작품을 남긴 조각승이다. 현진과 함께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 가운데 충옥, 모현, 득우, 초변 등은 이후 색난과 함께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광주 덕림사 불상은 색난파(色難派)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덕림사 지장보살과 사왕상은 망자(亡者)를 위로하거나 심판하는 명부전(冥府殿)의 조각으로서,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존자·무독귀왕, 시왕상, 관관, 귀왕, 동자, 장군 등 26구의 다양하고 대단위 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7세기 전반의 실재감 있는 얼굴 표현과 넓고 낮은 무릎에서 오는 안정감 있는 형태, 귀엽고 큰 얼굴에 코가 크게 강조되었다든지 무릎의 폭과 높이를 줄인 아담한 조형미를 추구하고 있다. 세부표현에서는 작가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17세기 후반 조각승들이 추구했던 미의식도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색난은 17세기 후반 불교조각계의 새로운 양식과 경향을 선도했던 조각승이었으며, 이 작품은 그 가운데 주목되는 작품 중 하나이다.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수조각승 색난의 현존 작품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한 작품으로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에 있어 중요한 족적을 남긴 색난이라는 작가의 위상을 감안할 때 상징성과 중요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요 존상(尊像)의 손실이 없고, 작품성도 뛰어나 17세기 후반기 명부전 존상의 대표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별표) 광주 덕림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현황

연번	명칭	재질	크기	조성연대	비고
1	지장보살상	나무	99.5cm	1680년	*사각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
1-1	지장보살 발원문	종이	32.6×64.2cm	"	
2	도명존자상	나무	142cm	"	*석장을 쥐고 있음
2-1	도명존자 발원문	종이	33.0×62.7cm	"	
3	무독귀왕상	나무	156.5cm	"	*보협을 받쳐 들(최근에 새롭게 제작한 것으로 추정)
3-1	무독귀왕 발원문	종이	33.2×51.1cm	"	
3-2	후령통	철	높이13.6 지름 3.3	"	*황초폭자에 쌓여 있음. 바깥쪽 정면에 朱書로 '南' 표기
4	제1진광대왕	나무	154.5cm	"	*두손으로 홀을 잡음
5	제2초강대왕	"	158cm	"	*오른손으로 홀을 잡고, 유희좌로 앉음
6	제3송제대왕	"	147cm	"	*두손을 책을 펼쳐 들
7	제4오관대왕	"	151cm	"	*왼손으로 홀을 잡고, 반기좌로 앉음
8	제5염라대왕	"	144cm	"	*冠 위에 금강경을 올려놓았고, 두손으로 공손히 홀을 잡음
8-1	후령통	철	높이14.0cm, 지름3.2	"	*황초폭자에 쌓여 있음. 바깥쪽 정면에 朱書로 '南' 표기
9	제6번성대왕	나무	149cm	"	*왼손으로 책을 잡음
10	제7태산대왕	"	162cm	"	*오른손으로 수염을 매만지고, 반기좌로 앉음
11	제8평등대왕	"	155.8cm	"	*왼손으로 홀을 잡고 오른손으로 수염을 매만짐. 오른발로 흰코끼리를 밟고 있음
12	제9도시대왕	"	158cm	"	*오른손으로 홀을 잡음
13	제10전륜대왕	"	144.4cm	"	*머리에 봉황관을 씌
14	귀왕상(좌)	"	116.5cm	"	*공수자세로 홀을 잡음
15	귀왕상(우)	"	117cm	"	*공수자세로 손을 모았으나 지물은 소실
16	관관상(좌)	"	114.5cm	"	붓과 책을 들고 있음
17	관관상(우)	"	115cm	"	책을 들고 있음
18	사자상(좌)	"	117cm	"	부월과 명부를 쥐고 있음
19	사자상(우)	"	113.2cm	"	삼지창과 명부를 쥐고 있음
20	동자상1	"	60.2cm	"	
21	동자상2	"	64.9cm	"	
22	동자상3	"	52.2cm	"	
23	동자상4	"	56.1cm	"	
24	동자상5	"	52.5cm	"	
25	동자상6	"	52.4cm	"	
26	동자상7	"	56.2cm	"	

□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高興 楞伽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 및 十六羅漢像 一括)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高興 楞伽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 및 十六羅漢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① 불 상 :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사
 ② 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사(순천 송광사성보박물관)
- 소재지 : ① 불 상 :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팔봉길 21, 능가사
 ② 복장유물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성보박물관
- 수 량 : 불상 23구, 발원문 18점, 후령통 20점
- 규격(cm) : 본존 높이 104 무릎폭 69.5, 대좌높이 65
 제화갈라(우) 높이 93, 무릎폭 58.5, 대좌높이 60.8
 미륵보살(좌) 높이 89, 무릎폭 58.5, 대좌높이 60.7
 아난존자 높이 127.5, 가섭존자 127.8
 나한상(우1) 108, 나한상(우2) 108, 나한상(우3) 110.5,
 나한상(우4) 105.5, 나한상(우6) 102, 나한상(우7) 108,
 나한상(우8) 103.5
 나한상(좌1) 110, 나한상(좌2) 110.5, 나한상(좌3) 106,
 나한상(좌4)106.5, 나한상(좌5)110, 나한상(좌6) 109,
 나한상(좌7) 111, 나한상(좌8) 105.5
 제석(우) 102, 제석(좌)100.5
- 재 질 : 목조
- 조성연대 : 1685년(숙종 11)
- 제작자 : 색난(色難), 도현(道軒), 순경(順瓊), 행탄(行坦), 초우(楚祐), 모선(慕善), 초변(楚卞), 득우(得祐), 철옥(徹玉), 웅원(雄遠), 문인(文印), 재현(載軒)
- 사유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은 능가사 응진당(應眞堂)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 일괄로, 복장(腹藏)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85년 6월 전라도 홍양현(洪陽縣) 팔영산(八影山) 능가사(楞伽寺) 비구(比丘) 상기(尙機)가 불자(佛子)들을 모아 발원하였고,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 색난과 그의 동료·제자들이 주도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색난은 화엄사 각황전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팔영산사문(八影山沙門)’, 즉 팔영산 능가사에 주석한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능가사 응진당 존상의 제작자 뿐 아니라 가섭존자의 시주자로도 등장한다. 그밖에 1698년 능가사 범종 시주, 1707년 능가사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 간행 시주, 1730년 능가사 기와 시주 등 능가사 불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팔영산 사문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고흥 능가사는 수조각승 색난의 본사(本寺)이자 활동의 본거지로서, 이곳의 응진당 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은 그가 주석한 본사에서 대단위 불사를 진행하고 남긴 작품이라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고흥 능가사 석가여래삼존상과 십육나한상은 응진전 조상(造像)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석가여래와 미륵보살, 제화갈라 보살 삼존상을 비롯해 문수·보현보살과 아난·가섭존자가 육대보살로 이루어진 이채로운 구성이라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높다. 이는 이러한 형식의 응진전 도상이 1624년의 순천 송광사 응진전 존상에서 시작해 이후 색난에 의해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한 사실을 통해서도 조각사적으로 주목되는 현상이다.

비록 일부 존상이 남아 있지 않지만, 현존하는 상만으로도 구성이 거의 완전하고, 나한상의 표정과 자세, 지물(持物)과 대좌 등에 채택된 동물에 있어 창의성이 뛰어나고 풍부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어 예술성도 탁월하다. 특히 나한상 상호와 세부표현은 색난조각의 스승으로 판단되는 응원(應元)과 인균(印均)의 조각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바위 대좌에 동물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그의 또 다른 조각 스승인 무염(無染)의 영향도 간취된다. 따라서 능가사 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은 색난 조각의 형성과 발전, 조각승의 사승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별표)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십육나한상 발원문 및 후령통 목록

유물번호	명칭	시대	크기(cm)	재질	비고
능가-11(10-7)	나한상조상기문	1685	115.3×29.1	종이	
능가-25(7-1)	후령통	조선	지름3.1 높이14.0	동	*황초폭자 포장
능가-25(7-2-1)	후령통	조선	지름3.2 높이16	동	*황초폭자 포장 *전체 변색박락
능가-25(7-2-2)	후령통	조선	지름2.9 높이7.0	동	*황초폭자 포장 *하단부 결실
능가-25(7-3)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8×29.0	종이	
능가-27(4-1-1)	후령통	조선	지름3.1 높이15.5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27(4-1-2)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4×29.2	종이	
능가-28(7-1-1)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4×28.9	종이	
능가-28(7-1-2)	후령통	조선	지름3.1 높이18.0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28(7-7)	후령통	조선	지름3.0 높이11.5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29(5-1-1)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3×29.2	종이	*하단부 일부 탈락
능가-29(5-1-2)	후령통	조선	지름3.1 높이13.0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31(5-1)	불상조상기원문	1685	102.1×28.8	종이	
능가-31(5-2)	후령통	조선	지름3.1 높이16.7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32(9-1)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3×28.9	종이	
능가-32(9-2)	후령통	조선	지름3.1 높이9.7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33(5-1)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5×29.0	종이	
능가-33(5-2)	후령통	조선	지름2.9 높이8.8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34(7-1)	후령통	조선	지름3.0 높이8.7	동	"
능가-35(5-1)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5×29.1	종이	*상단일부박락
능가-35(5-2)	후령통	조선	지름3.1 높이8.8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37-1	후령통	조선	지름3.2 높이9.2	동	*황초폭자 포장
능가-37-2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4.8×29.0	종이	
능가-38(7-1)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5×29.0	종이	*상대불량
능가-39(13-1)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4×28.9	종이	

유물번호	명칭	시대	크기(cm)	재질	비고
능가-39(13-13)	후령통	조선	지름2.7 높이11.1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40(10-1)	후령통	조선	지름3.3 높이 11.1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40(10-2)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4×29.0	종이	
능가-41(6-1)	후령통	조선	지름3.1 높이9.1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41(6-2)	불상조상기원문	1685	13.0×19.0	종이	*상대불량
능가-42(11-1)	후령통	조선	지름3.1 높이8.4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42(11-2)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1×28.8	종이	
능가-43(6-1)	후령통	조선	지름3.1 높이8.7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43(6-2)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4×29.0	종이	
능가-44(11-1)	후령통	조선	지름3.1 높이19.5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44(11-2)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4×29.0	종이	
능가-45(7-1)	후령통	조선	지름2.9 높이8.8	동	*황초폭자에 포장
능가-45(7-2)	불상조상기원문	1685	115.0×128.5	종이	

□ 김해 은하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金海 銀河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은하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金海 銀河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은하사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신어산길 167, 은하사
- 수 량 : 불상 21구, 발원문 2점
- 규격(cm) : 지장보살 상높이 110 무릎폭 80,
도명존자(좌) 상높이 132 어깨폭 39, 무독귀왕(우) 상높이 164.5 어깨폭 38.5
제1진광대왕(좌1) 상높이 156.5, 제3송계대왕(좌2) 상높이 153
제5염라대왕(좌3) 상높이 141, 제7태산대왕(좌4) 상높이 142
제9도시대왕(좌5) 상높이 159
제2초강대왕(우1) 상높이 159, 제4오관대왕(우2) 상높이 154,
제6변성대왕(우3) 상높이 155.5, 제8평등대왕(우4) 상높이 159
제10오도전륜대왕(우5) 상높이153
귀왕상(좌) 상높이 123.5, 귀왕상(우) 상높이 117.5
관관상(좌) 상높이 116.3, 관관상(우) 상높이 119
사자상(좌) 상높이 112, 사자상(우) 121.5
장군상(좌) 상높이 165, 장군상(우) 165
- 재 질 : 목조
- 조성연대 : 1687년(숙종 18)
- 제작자 : 색난(色難), 순경(順慶), 행탄(幸坦), 모현(慕賢), 초우(楚雨), 득우(得牛), 웅원(雄遠), 문인(文印), 제현(載軒), 정언(淨彦), 추평(秋評)
- 사유

‘김해 은하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은 발원문에 의하면 1687년(숙종 18) 김해 신어산(神魚山) 서림사(西林寺) 시왕전(十王殿)에 봉안된 존상으로, 서림사 시왕전은 현재의 은하사 명부전이다. 서림사는 근대 시기 ‘은하사’로 사찰명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은하사 명부전 존상은 모두 21구로,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귀왕, 관관, 사자, 금강역사 등 거의 완전한 존상을 갖추고 있다.

이 불상은 경상도 최동부 지역인 김해 지역에서 1687년에 조성한 색난의 기년작으로서, 주로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색난파(色難派)의 활동 영역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품이다. 색난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명부전 불상 일괄은 대략 4건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은 광주 덕림사 불상과 더불어 색난의 대표 명부존상으로 평가된다. 이 은하사 명부존상은 색난의 전성기 조각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으며, 상의 비례나 양식에 있어 아담한 체형을 추구한 17세기 후반의 조각양식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시왕상의 관좌와 답좌(踏座, 발거치대)에는 용, 봉황, 코끼리, 사자 등 다양한 서수(瑞獸)들을 수용해 새로운 시왕도상의 전범(典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조각사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김해 은하사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은 1687년 조각승 색난을 중심으로 제작한 상으로 존상의 완전성과 창의적인 도상(圖像), 그리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학술적·예술적 중요성이 크다.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의 한 획을 그은 색난의 전성기 때 작품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求禮 華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四菩薩立像)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求禮 華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四菩薩立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화엄사
- 수 량 : 7구(불상 3구, 보살상 4구, 불상대좌 3점 포함)
- 규격(cm) : 석가여래 높이 366, 무릎폭 235, 대좌높이 107
다보여래 높이 328, 무릎폭 212, 대좌높이 108
아미타여래 높이 327.5, 무릎폭 209, 대좌높이 103.5
문수보살입상(좌) 높이 320, 어깨폭 103, 대좌높이 59
보현보살입상(우) 높이 320, 어깨폭 102, 대좌높이 59
지적보살입상 높이 312. 대좌높이 54.2
관음보살입상 높이 313.5 대좌높이 54
- 재 질 : 목조
- 조성연대 : 1703년(숙종 29)
- 제작자 : 색난(色難), 충옥(冲玉), 일기(一機), 웅원(雄遠), 추봉(秋朋), 추평(秋平), 순원(順瑗) 행탄(幸坦), 승매(勝梅), 초변(初卞), 각초(覺初), 도환(道還), 도견(道堅), 덕희(德希), 법융(法融), 대유(大裕), 진총(進聰), 정혜(定惠), 진일(進一),

선각(善覺), 징해(澄海), 서행(瑞行), 인척(仁陟), 하천(夏天)

○ 사 유

화엄사 각황전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은 예천 학가산에서 화엄사로 온 계과 성능(桂坡 聖能)이 장육전(丈六殿, 지금의 각황전覺皇殿)을 증창한 후 1703년 주존불로 조성한 대형 불상으로서, 색난의 만년작(晩年作)이다. 각황전의 창건과 불상 조성은 화엄사 중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불사(佛事)로서, 전각명도 왕실로부터 하사받아 이때부터 장육전에서 ‘각황전’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불상 조성에 있어 숙종을 비롯해 측근 왕실인사들인 인현왕후, 경종(景宗, 당시는 세자), 숙빈최씨(淑嬪崔氏), 영조(英祖, 당시는 연잉군) 등을 비롯해 여흥민씨, 해주오씨 등 유력가문들도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18세기 초 최대의 왕실불사였음이 인정된다.

현재 불상에 제복장된 발원문에 의해 이 7존의 불보살상은 1703년 10월 4일에 조각승 색난(色難)을 중심으로, 충옥(沖玉), 일기(一幾) 등 24명의 조각승이 협업해 만든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석가여래좌상은 색난, 다보여래상과 문수보살상은 충옥, 아미타불상은 일기, 보현보살상은 웅원, 관음보살상은 색난과 추봉, 지적보살상은 추평이 각각 주도하여 조성한 사실을 통해 당시 최고 권위의 왕실발원 불상 조성에 색난이 초빙된 것은 조각승으로서 그의 명성이 대단히 높았음을 입증해 준다.

화엄사 각황전은 거대한 이층전각의 목조건물로서, 여기에 봉안된 불상 또한 규모에 맞는 웅장함과 형태미로 조성되었다. 주존불인 석가여래삼불좌상은 당당하고 묵직한 형태에 신체에 비해 큰 네모난 얼굴로 압도적이면서도 정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반면 삼불좌상의 좌우에 서 있는 사보살입상은 유사한 얼굴과 비례를 보이면서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여 대조를 이룬다. 이렇듯 서로 대비되는 여래와 보살의 조형성은 전각 내부를 웅장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이끄는 효과를 보이는데 이는 색난의 우수한 감각과 조각기술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각황전 불상은 도상학적으로도 의의가 크다. 석가·다보·아미타여래 삼불상과 석가여래의 좌우협시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다보여래의 협시보살로 지적보살(智積菩薩)이, 아미타여래의 협시보살로 관음보살이 짝을 이룬 도상은 1665년 간행 『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에 의거한 ‘법화거불(法華擧佛)’, 즉 법화신상에 바탕을 둔 불교의식집에 등장하는 도상의 최초 조각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처럼 화엄사 삼불사보살상은 40여 년 동안 활동한 조각승 색난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그동안 숙련된 기량과 원숙함이 반영된 그의 기념비적인 대작이자, 도상학적으로도 의의가 크다는 점, 수준 높은 조형성과 기술적 완전성을 갖춘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

[참고] 참여 조각승 관련 발원문 내용

造釋迦觀音像 八影山沙門 色難

造多寶文殊像 曹溪山沙門 沖玉

造彌陀像 椶伽山沙門 一幾

造普賢像 雄遠

造觀音像 秋朋

造智積像 秋平

順瑗 幸坦 勝梅 初卞 覺初 道還 道堅 德希 法融

大裕 進聰 定惠 進一 善覺 澄海 瑞行 仁陟 夏天

□ 데니 태극기(데니 太極旗)

- 지정현황 : 국가등록문화재 제382호(2008.8.12. 등록)
- 명 칭 : 데니 태극기(데니 太極旗)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 182.5×262cm
- 재 질 : 면직물
- 형 식 : 태극문양과 4괘를 갖춘 태극기
- 조성연대 : 1880년대~1890년 이전
- 사 유

‘데니 태극기’는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한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Owen Nickerson Denny, 1838~1900)가 소장했던 것으로, 1891년 1월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가지고 간 것을 1981년 그의 후손이 우리나라에 기증해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이 태극기가 데니의 유품 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가 조선에 마지막으로 머문 해인 1890년을 제작의 하한연대로 보고 있다. 데니는 1886년 이홍장(李鴻章)의 추천을 받아 뮐렌도르프의 후임으로 조선 정부의 외교 및 내무 담당 고문으로 부임해 4년 동안 고종의 휘하에서 외교·법률·경제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실무를 담당하면서 대한제국의 주권을 주장한 외교관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시기는 1882년 9월이다. 1883년 3월 6일 고종이 전국에 국기를 사용토록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으나, 당시 제작된 태극기 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니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 변천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데니 태극기’는 제작기법 측면에서도 근대문물이 밀려오던 19세기 말 정세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당시 서양 국기를 제작하는 방법을 참조한 것으로, 전통적인 손바느질이 아닌 상하 90cm 정도 크기의 넓은 폭의 면직물을 바탕재료로 하여 재봉틀을 사용해 박음질했다는 점, 청색·홍색 태극과 청색의 4괘(四卦)를 부착하는 데 있어 바탕천을 오려내고 두 줄로 박음질해 멀리서도 문양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시각적 효과를 꾀한 점 등 초창기 국기 제작법을 적용해 매우 정교하고 정성껏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데니 태극기’는 국기를 제정해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대한제국 외교적 노력을 증명하는 유물이자,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열망의 상징이 된 태극기의 기원을 보여 준다는 점, 세로 182.5cm, 가로 262cm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옛 태극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기 제정의 초창기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라는 점

에서 뜻깊은 자료이므로, 보물로 지정할 사유가 충분하다.

□ 김구 서명문 태극기(金九 署名文 太極旗)

- 지정현황 : 국가등록문화재 제388호(2008.8.12 등록)
- 명 칭 : 김구 서명문 태극기(金九 署名文 太極旗)
- 소유자(관리자) : 국유(독립기념관)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독립기념관
- 수 량 : 1점
- 규 격 : 44.3×62.0cm
- 재 질 : 건축물(인조직물 일종)
- 조성연대 : 1941년
- 사 유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1941년 3월 16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金九, 1876~1949) 주석이 독립의지를 담은 글귀와 서명을 써 친분이 있던 벨기에 신부 매우사(梅雨絲, 본명 샤를 미우스 Charles Meeus)에게 준 것이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매우사 신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인 이혜련 여사에게 이 태극기를 전달했고, 후손들이 보관해오다 ‘안창호 유품’ 중 하나로 1985년 3월 11일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었다.

세로 44.3cm, 가로 62cm 아담한 크기의 비단 천에 청색과 홍색 천으로 태극을 만들어 붙이고, 흑색 천으로 4괘를 덧대어 제작한 태극기이다. 깃대는 오른쪽에 천을 덧대어 만들었으며, 괘는 가로 상단에 건괘(乾卦)와 감괘(坎卦), 하단에 이괘(離卦)와 곤괘(坤卦)가 배치되어 있다. 깃대와 괘의 사이에는 김구 선생 친필로 묵서 4줄 143자가 쓰여 있고 마지막에 ‘김구(金九)’라고 새겨진 작고 네모난 인장이 찍혀 있다.

이 태극기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김구와 안창호로 대표되는 일제강점기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한국인들의 광복에 대한 염원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서명문에서 김구는 망국의 설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광복군을 도와줄 것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19세기~20세기 초 제작 태극기 중 정확한 제작시기가 알려진 유일한 자료라는 점, 대한민국의 독립을 열망한 독립운동가들의 간절한 신념이 대표적으로 담겨 있다는 점, 1942년 6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태극기의 제작규정을 통일하기 직전에 제작되어 태극기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 서울 진관사 태극기(서울 津寬寺 太極旗)

- 지정현황 : 국가등록문화재 제458호(2010.2.25. 등록)
- 명 칭 : 서울 진관사 태극기(서울 津寬寺 太極旗)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진관사
- 수 량 : 1점
- 규 격 : 70.0×88.0cm
- 재 질 : 면직물
- 조성연대 : 1919년 경
- 사 유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건물인 칠성각(七星閣)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佛壇) 안쪽 벽체에서 발견된 것으로, 태극기에 보자기처럼 싸인 독립신문류 19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신문류는 『경고문』·『조선독립신문』·『자유신중보(自由晨鐘報)』·『신대한(新大韓)』·『독립신문』 등 5종으로, 1919년 6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진관사 소장 태극기 역시 3.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에서는 태극기를 숨긴 인물로 진관사 승려였던 백초월(白初月) 혹은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던 승려로 추정하고 있다.

진관사 태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항일(抗日) 의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되었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 1919년에 제작된 태극기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태극기는 1919년에 제작된 실물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진관사 태극기와 함께 발견된 독립신문류에도 태극기와 태극문양 및 태극기 관련 기사가 실려 있어 더욱 의의가 있다. 특히, 태극과 4괘가 우주 만물의 기본 요소나 만물의 생성·변화·발전하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힘과 사랑’을 토대로 ‘자유와 평등’을 온 세상에 실현해나가는 뜻으로 새롭게 해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독립신문은 당시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진관사 태극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태극기의 변천사와 그 의미를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진관사 태극기’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로, 불교 사찰이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형태상으로도 일장기 위에 태극의 청색부분과 4괘를 검정색 먹물로 덧칠해 항일 독립의지와 애국심을 강렬하게 표현했으며,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라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지정예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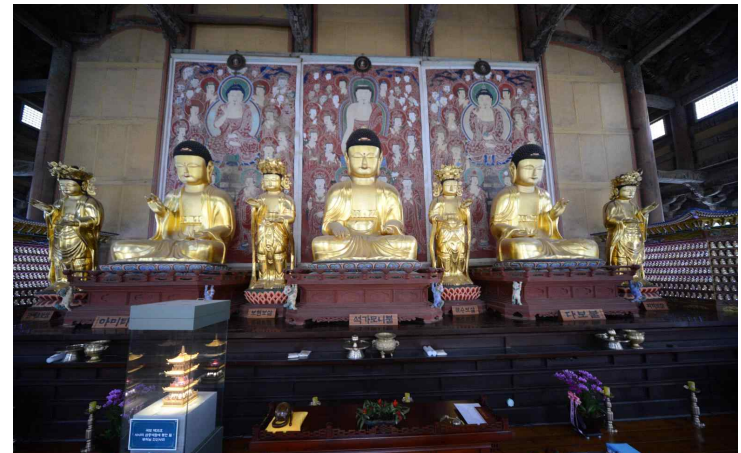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십육나한상 일괄>



<김해 은하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대니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



<서울 진관사 태극기>